

# “풍부한 감성 투영해 작성...시대를 기록”

## CULTURE

2025년 3월 5일 수요일

### 비상계업일부터 탄핵시편 정리해온 박종화 작가

### 탄핵시집 60~70편씩 묶어 3집까지 폐북에 발표

“1980년 5월부터 싸우다 보니 기록을 보관하는 게 습관화되지 않았죠. 기록을 소홀히 해온 셈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휴대폰이 있으니까 웬만한 것은 시대를 기록할 수 있어요. 감성이 풍부한 기록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해 왔습니다.”

‘투쟁의 한길로’와 ‘바쳐야 한다’, ‘파랑새’ 등을 작곡했던 장본인으로 가수이자 시인, 서예가 등 다채로운 예술분야에 이름을 걸치고 있어 종합예술인 정도로 봐야겠지만 민중운동 특색이 희석되는 면이 있어 그냥 작가라고 불러달라 한다. 지역 민중운동 판에서 그를 모르면 짜가다.

그는 광주를 연고로 1980년 서울퍼런 군부독재의 억압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이땅의 민주화를 위해 싸우는 인물이다. 주인공은 올해 민중음악 작곡을 해온지 37년째에 접어들어 민중음악가 박종화(62) 씨가 그다. 앞선 문트는 그가 탄핵정국에서 느낀 감회다. 그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발동된 이후 끓어오르는 분노를 담은 탄핵시편들을 페이스북 등 SNS상에서 발표하고 있어 주목된다. 비상계엄일부터 거의 하루도 쉬없이 기록한다는 취지로 시작 감정을 정리해 왔다. 모든 시편은 폐북에 소개했던 작품들이었다. 탄핵시집 1집 ‘아무 것도 없다’는 지난 1월 3일에, 탄핵시집 2집 ‘그 나이에 그

나이에’는 지난 2월 8일에, 탄핵시집 3집 ‘시간’은 2월 15일에 각각 올렸다. 1집에는 비상계엄에 대한 충격을, 2집에는 윤석열 체포를, 3집에는 그 이후의 감정들을 정리했다. 시집에는 각각 60~70여편을 한데 묶었다. 그의 이번 탄핵시편들은 현장감을 최대한 살려 한편의 시로 정리한 작품들이어서 솔직한 감성이 꿈틀댄다.

“한 인간이 역사적 순간을 지켜보며 시민들의 분노도 감정이 살아있는 것을 느낍니다. 모든 시들이 탄핵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이번 작품들은 완결성보다는 시대를 기록하는데 초점을 맞춰 한편의 시로 형상화했다고 보면 되죠.”

작가는 지난 2월에 소개한 2집에서 시간이 지나면 상당수 글들이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SNS를 통로로 시의성 있을 때 발표하는 것으로, 깊은 검토없이 올리니까 혹여 오자가 나오더라도 이해해주면서 읽어주기를 당부하는 것 또한 잊지 않았다.

또 처음에 시를 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난만 뜨면 폐북에 공유했던 글들이 자연스럽게 시가 된 것으로, 쓴 순서대로 재배치를 해 한결 읽기가 수월해진다는 설명이다. 특히 탄핵 과정에 집중하는 날들이 지속되다 보니 다른 일손이 잡히지 않아 쓰기 시작했다는 점을 밝히면서 사실의 기록도 중요하지만



박종화 작가는 “요즘은 휴대폰이 있으니까 웬만한 것은 시대를 기록할 수 있다. 감성이 풍부한 기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해 왔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예작업 중인 박 작가.

자신의 현재적 기록이 아무 일을 안하는 것보다 나쁠 것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시작했음을 인정했다.

그의 시 ‘유튜버 생방송’은 요즘 전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극우 유튜버들을 질타하고 있다. 그는 이 시편을 통해 ‘용산 건물이 아무리 제아무리 넓어도/사방천지 암흑천지일 것이다/볼 것이 없을 것이다//한 줄기 빛/수구 반동의 유튜버/그러나 꺼질 수밖에 없는 빛/희망이 없는 빛/타다 재로 되

어 흔적 없이 사라질 빛//세상에서 가장 괴로운 일은/꺼질 줄 알면서/대안도 없이/그 빛에 희망을 거는 것이다’라고 분노를 표출한다.

이어 ‘누구 없는가’라는 시편은 올해 초 대통령 관저 앞에서 탄핵된 윤석열의 체포를 촉구하는 시위 현장에서 유래했으며, 밤샘 시위를 벌이던 시민들이 폭설과 추위 속에서 은막 담요를 덮고 웅기종기 모여 앉은 모습이 마치 키세스 초콜릿을 연상시킨다는 데서 착안해 이들을 부르기 시작한 ‘키세스

단’을 상기시킨다.

그는 ‘눈 내리는 겨울/아스팔트의 노상 새벽/온몸에 은박지를 두른 채 잘 수 있게 하는 힘은/어깨를 걸고 함께하는 동지의 뜨거운 땀에서 흐르건만//깜빡 눈 다시 뜬 아침/폭설에도 피할 생각 추호도 없이/아스팔트에 앉아 설풍찬 노숙으로/이 전쟁을 치르게 하는 동력은/전장의 산봉에서 나라와 동지를 위해 아낌없이 헌신하는/진짜 애국자들의 의로운 용맹이건만//도대체 이게 뭐가/저 몸뚱이 얼어버릴까 애간장 태우는 것이/바라보는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전부란 말인가’라고 묻고 있다.

이외에 시 ‘탕-실질심사’는 지난 2월 전국농민회총연맹 소속 농민들을 중심으로 남태령 고개 근처에서 경찰과 28시간 대치했던 집회로 널리 알려진 ‘남태령 트랙터 시위’를 떠오르게 하는 작품이다. 그는 ‘너릿새 녀고 남태령 녀고/마포대교 건너고 지하주차장으로 다시 내려가고//이러다간/백두산 경도 넘겠다//애다는 마음에 속해 소리 들린다/탕’이라고 소회를 밝히고 있다.

박종화씨는 민중음악가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동안 시서화집 포함해 시집 4권과 초대전을 망라해 단채전 13회, 개인독집 5장, 개인발표회 10여회에 달할만큼 다방면에 걸쳐 왕성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탄핵시집이 개인적으로 언제까지 지속될까에 대한 궁금증과 향후 예술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예술계의 탄핵정국을 바라보는 풍향계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 긴 세로 포맷의 풍경들...감각적 해석 돋보여

### 서영기 개인전 20일까지 예술공간 집

예술공간 집(대표 문희영)은 지역을 기반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서영기 작가의 제7회 개인전을 지난달 26일 개막, 오는 20일까지 ‘발췌된 풍경, 덧입혀지는 이야기’라는 주제로 연다. 출품작은 지난해와 올해까지의 최근 작품 30여점과 드로잉.

서 작가는 조선대 미술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했으며 지난 2024년 광주시립미술관의 레지던시 프로그램으로 독일 뮌헨의 레지던시에 참여하는 등 최근 국내외 활동을 넓혀가며 활발하게 작품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는 가운데 마련된 이번 전시는 예술공간 집이 최근 지속적으로 진행해온 ‘넋뜨프로젝트’ 첫 해(2022년) 참여작가로 작가의 지속적 성장과 미술시장으로의 연계 활동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 의미를 더한다.

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하고 줄곧 회화 작품을 지속해오고 있는 서 작가는 풍경이지만 미적 감흥의 대상으로서의 풍경보다는 낯설이나 기시감 등을 강조하는 생경한 풍경을 화폭에 담아왔다.

최근 작품들은 자신의 일상 속 만나게 되는 장면들을 의속하면서도 더 낯선 시선으로 보여준다.

작가는 주로 자신이 걷고 산책하며 만나는 풍경들을 그림으로 옮기는 데, 긴 세로 포맷의 풍경들이 조금 특별해 보인다. 마치 한 장면을 그림에 내듯 스마트폰 안에 저장된 장면들은 작가의 감각적 체화를 거쳐 작품으로 재현된다.



‘숨바꼭질 (Hide and Seek)’



‘흔적’

전시명 ‘발췌된 풍경, 덧입혀지는 이야기’는 평범한 일상의 단면들을 들춰내며 적막한 풍경에 따스한 시선이 스미고, 고요한 장면들에 작은 파문을 불러일으킨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서영기 작가는 이번 전시에 대해 “범취진 풍경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일자가 타인이 아닌 나와와 관계를 들여다보는 일로 내 안에서 시작되는 이야기들에 관람객의 이야기가 더해지며 많은 관객들이 그림을 매개로 연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윤규홍 평론가는 서문을 통해 “이번 개인전에서 일종의 숨바꼭질을 벌인다. 화가에게는 익숙한 지점을 아무도 모르게끔 그리는 것도 기술이

다. 여기서 그게 가능한 건 배회와 동선 안에 낯선 풍경이 그 안에 담겨있었는지 모르는 사건을 담았기 때문이다. 웬만한 경우가 아니면 건물 반간만 반의 도시 경관을 소재로 채택하지 않는 부분 또한 크다. 관객은 술래가 돼 작품 속 기시감 어린 장소가 어디인지 하나씩 찾아야 한다”고 평했다.

전시 부대행사로 진행될 아토크는 ‘덧입히는 이야기들’을 주제로 서영기 작가의 작품에 관객의 이야기가 더해진다. 전시 기간 중인 12일 오후 7시에 진행된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 백현호 작가 ‘골든아티스트 어워드’ 수상

### (사)한국전업미술가협회, 전업화가 성실 수행 ‘작업에 더 매진 채찍’...시상식 오늘 수훈회관



(사)한국전업미술가협회는 ‘골든아티스트 어워드’ 수상작가로 광주를 연고로 창작활동을 펼쳐온 백현호씨를 선정, 발표했다. 골든아티스트 작가는 전업 작가로서 그 과정을 성실히 수행해온 작가를 대상으로 선정, 시상하고 있다. 광주에서는 백 작가가 수상자로 선정돼 지난달 27일에 통보됐다는 설명이다.

백 작가는 수상 소감을 통해 “다른 분야에 한눈을 팔지 않고 그림 외길을 걸어왔다. 전업 화가로 사느라고 다른 일을 단 한번도 해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걸어왔다”면서 “앞으로 더 작업에 매진하라는 채찍질로 알고 있다. 한국 현대미술 화단의 후배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라는 당부로 알고 전업화가로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백 작가는 20대부터 50대까지 산 속으로 들락날락한 화가로 산을 통해 수없이 많은 능선을 헤쳐가며 또 다른 삶의 등정을 해왔다. 산에서 그가 오를 삶의 능선들은 때로는 아스라이 떨어져 내리고, 또 때로는 삐죽 솟구친 기암괴석의 그 자체였다. 산이 그의 회화세계에 미친

영향은 작지 않다.

특히 작가는 무등산의 등근 능선에서 어머니의 사랑음, 월출산의 기암괴석에서 말 잃었던 투박한 아버지의 목직 한 마음을 읽어내는 동시에 산의 굴곡에서 삶의 기록을 느꼈다는 설명이다. 같은 산이어서 시간대나 날씨대 등을 달리하며 찾아가 산의 속표정을 조망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여왔다는 설명이다. 그래서 그의 산행은 단순한 산 그림이 아니라 삶의 표정이 속속들이 스며드는 화폭인 것이다.

백 작가는 향후 계획과 관련해 “이번 수상을 계기로 새로운 작품으로 전시회를 열어볼까 구상 중”이라고 덧붙였다.

백현호 작가는 1981년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올해 44번째 전업회화의 길을 걷고 있다. 시상식은 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경운동 소재 수훈회관.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 사설과 기교 ‘동초제 심청가’ 매력 무대로

### 안세은 발표회 8일 빛고을국악전수관

광주에서 국악과 2학년에 재학중인 안세은의 동초제 심청가 발표회 ‘졸탁동시’가 8일 오후 2시 광주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에서 열린다.

안세은은 2023년 무안승달 전국국악대제전 청소년부 대상, 2022년 무안승달 전국국악대제전 청소년부 우수상, 2021년 미주 한국국악경연대회 청소년부 대상을 수상했다.

그는 이번 발표회에서 동초제 ‘심청가’ 중 ‘심청의 탄생’, ‘곽씨 부인의 죽음’, ‘심봉사의 쫓겨남’ 대목을 선보인다.

심청가는 판소리 다섯 바탕 중 하나로 태어난지 7일 만에 어머니를 잃은 심청과 아버지 심봉사의 삶을 그린 곡이다. 동초제는 김연수 명창이 1930년 초 당시 5명창인 송민갑

·유성준 등에게 배운 소리를 기반으로 자신의 판소리 이념에 맞게 완성한 것으로, 사설의 정확성과 연극적 면모, 다양한 불임새와 기교가 특징이다.

이날 고수는 국가무형유산 판소리교본 전수자인 김준영 광주시립창극단 상임단원이, 사회는 서비청(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 3년)이 맡는다.

안세은은 “조혜진 선생님과 가족들의 따뜻한 응원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면서 “소리를 통해 힘들고 지칠 때도 있었지만 많은 경험을 하고 즐거움을 알게 됐다. 이번 무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준비했다. 많은 격려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다경 기자 alsqsl94@gwangnam.co.kr



안세은

## 과학지식 가르며 자녀와 소통 나신다

### 국립광주과학관 ‘과학하는 엄마들 1기’ 16일까지 모집

국립광주과학관(관장 이정구)은 오는 16일까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과학하는 엄마들 1기’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과학하는 엄마들’은 유·초등학생 학부모의 과학지식과 과학적 소양 함양과 더불어 자녀와의 교육적 소통기반 마련을 위한 성인프로그램으로 올해는 홀수달마다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1기는 ‘디지털 리터러시 따라가기’라는 주제로 오는 18부터 27일까지 2주간 매 화요일과 목요일에 4일간 진행된다. 자녀가 과학관에서 배우는 코딩교육(‘생활 속 AI이론 및 작곡AI 활용해보기’, ‘LEGO 스파이크 프라임 코딩 및 자율주행 미션’, ‘아두이노 코딩 및 로봇팔 센싱 제어’)을 부모가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한 디지털 소양교육과 자녀 소통강연(디지털 리터러시 시대 우리 아이와 대화 어떻게 해야할까?)으로 구성됐다.

이정화 선임연구원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디지털 리터러시 시대 학부모의 디지털 기술에 대한



교육에 참여한 학부모들.

이해도도 향상시키고, 아이들과 프로젝트나 문제 해결 방식을 공유함으로써 소통과 공감대 형성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참가 신청은 선착순으로 접수로 하면 된다. 모집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립광주과학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다경 기자 alsqsl94@gwangnam.co.kr